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in Urban Familie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문 숙 재
대학원생 정 은 숙

Ewha Women's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Associated Prof.; **Sook Jae Moon**

Graduate School Student; **Eun Sook Jeong**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aims at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ntext of social well-being. To meet this purpose, several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life were selected them the recent theoretical studies in this field.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made on random sampled urban familie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two sets of indicators and the quality of family life.

The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methods and One-way ANOVA.

From th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quality of life of the high-income earners is higher than that of the low-income earners.
2. The quality of life tends to be high in the family with spouse' high educational background.
3. The degree of coctribution of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 to the quality of life was very high. But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the former was little bit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4. The objective indicator and the subjective indicator concerning the quality of life was closely related.

Further, the problem of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studied more in a wider perspective in the field of Home Management by focusing the issues of Housework that has been prove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toward the quality of life.

I. 서 론

인간사회에서는 언제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하여 발전지향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궁극적 목표¹⁾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추구에 있고 이는 곧 생활의 질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활의 질은 사회발전 및 생활향상에 관심을 갖는 모든 학문분야의 중요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추구를 목표로 하는 가정학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나 생존을 위해 양적인 욕구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욕구충족을 필요로 한다²⁾.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경영행동을 하는 행동체계³⁾로서 가정경영행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정신적 만족과 풍성한 물질적·정신적 생활의 성취를 추구한다.

가정경영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가정내의 행동이다. 즉, 가정경영은 양적인 생활수준을 바탕으로 질적인 생활표준을 향해 이루어지는 가정내의 행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정경영의 목적은 생활의 질의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정은 생활의 질이 형성되는 장소로, 높은 차원의 생활의 질을 이루려면 가정생활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가정학회⁴⁾는 이미 1971년에 가족들이 생활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학의 책임이며, 영양·가족계획·건강·교육·인간발달 등의 개념은 생존에 기여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이 원하는 생활의 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가정학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정학에 있어서의 생활의 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실증조사는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가의 생활의 질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⁵⁾,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가정생활의

체계이론을 근거로 제시한 연구⁶⁾, 가족환경 및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⁷⁾, 생활의 질 인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밝히고 생활의 질을 예시해주는 중요생활관심영역을 파악한 연구⁸⁾, 생활의 질을 예시해주는 객관적 환경조건과 주관적 지표를 파악하고 인간생태학적 모형을 시도한 연구⁹⁾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의 질 지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거나 단지 생활의 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생활의 질은 욕구충족을 위한 가치체제로 가정경영의 방향과 평가의 기본자료가 되며 행복증진을 위한 도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의 중요생활관심영역에 대한 객관적 환경조건 및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여 경험적 조사 연구를 행함으로써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의 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간 생활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가정생활의 개선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셋째, 객관적 생활환경조건과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와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이 연구 분야를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공헌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요생활관심영역(경제생활, 영양, 주거환경, 자녀교육, 가족관계, 여가생활, 건강, 가사노동)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구성하여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밝힌다. 둘째, 생활의 질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미치는 기여도를 살펴본다. 셋째, 생활의 질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인간의 총체적 영역이 아닌 중요생활관심영역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가족원에 따라 다르지만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적격한 가중치 부여방법이 없으므로 척도간의 가중치를 주지 않았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의 질 개념

생활의 질 개념은 개인이 속한 문화, 시간, 성별,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¹⁰⁾, 생활의 질은 개인의 사회적인 배경조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가 스스로 또는 타인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문제로 가치체계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¹¹⁾. 그러므로 현재 생활의 질 의미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없으나 생활의 질 개념의 중요성, 생활의 질을 정의할 필요성, 정책결정자를 위한 새로운 잠재적 관리도구로서의 생활의 질 중요성¹²⁾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흔히 생활의 질은 「행복된 삶」으로 일컬어지며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므로, 질적 생활이란 하나의 일반 개념으로서 ‘잘 사는 것’이라 표현¹³⁾할 수 있으며 종래의 행복이나 복지의 개념과 유사하다.

Gitter와 Mostofsky¹⁴⁾는 생활의 질은 인간의 일상적인 생존(Existence)의 조건이며, McCall¹⁵⁾은 일정한 사회나 지역내에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였다. Dalkey와 Rourke¹²⁾는 인간의 복지감(Well-being)이며, Schmalz¹⁶⁾는 개인이 현재 인지하는 상태와 개인의 열망, 요구(Wants), 욕구(Need) 등과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생활의 질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고, Mitchell, Logothetti, Kantor¹⁷⁾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인이 지닌 욕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는 만족감이라 하였다.

한편 Hornback과 Shaw¹⁸⁾는 개인들에게 적합한 객관적 조건과 이 조건에 대해 개인이 갖는 주관적 태도의 함수관계라 하였고, Liu¹⁸⁾는 인간의 안녕과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와 주

관적인 느낌의 복합상태라 정의하며 생활의 질의 최저수준은 두 부분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Andrews와 Withey¹¹⁾도 생활의 질은 단지 인간의 물리적·대인적·사회적 환경조건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인간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동¹⁹⁾은 육체적·물질적인 생활의 향상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필요화를 내포한다고 하면서 이는 곧 물리적·경제적·신체적인 면과 함께 경제적·심리적 면에서의 평안하고 풍요하며 건강한 생활이며, 따라서 생활의 질 향상은 외적 조건과 내적 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하였다. 김해동²⁰⁾도 생리적·심리적 안녕과 이런 상태를 조성하는 객관적 조건이라 하고 두 측면은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생활의 질은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사람의 물질적·신체적 수준 내지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개념을, 「인간의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정의적 평가로서의 주관적·심리적 상태」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생활의 질 지표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 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몇몇 선진국에서 1960년대부터 일어났으나 생활의 질적 수준 측정지표의 개발을 위한 관심과 포괄적인 연구작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보다 나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생활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구되어야 할 사회적 목표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의 질 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측면이 포함되는 것으로써 아직까지 지표의 조작성과 유효성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바람직한 사회개발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지표²¹⁾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 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화폐적으로 측정이 곤란하나 인간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비화폐적 요인을 중시하여 지표화해야 한다. 둘째, 생활의 질 개선에는 flow 뿐 아니라 stock(축적된 자산)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복지의 견지에서 보면 재화의 생산량 뿐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소득이나 부의 분배의 공정과 평등의 문제를 경제외적 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의 안전성도 지표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생활의 질 지표가 인간의 복지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인간의 주관적·정신적 만족을 표시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²²⁾. 이런 기본 특성을 갖출 때 생활의 질 지표가 갖는 잠재력과 이익²³⁾은 매우 유효하다. 즉 첫째, 생활의 질 지표의 개발은 대중적 기초에 선 이해관계, 그들의 희망과 가치체계 상의 우선도를 개발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둘째, 개발에 있어서 목표체계의 우선순위와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며 셋째, 개발문제에 따라 인간적 요소를 정책형성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유도지표(guideline Indicator)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지표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자료는 객관적인 사회지표로 개인의 생활경험과는 꼭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주관적인 사회지표가 개발되었다²⁴⁾. Andrews와 Withey¹¹⁾, Rodgers와 Converse²⁵⁾, Gitter와 Mostofsky¹⁴⁾, 김경동 등²⁶⁾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Dalkey²⁷⁾는 객관적 척도, 주관적 평가, 전체적인 주관적 척도로 생활의 질을 측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생활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 그 측정대상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없다. 객관적 지표는 어떤 항목 혹은 변수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나 적어도 각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중요한 변수를 선택해야 완전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주관적 지표도 아직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으나, 주관적 생활의 질이 열망, 기대, 행복, 만족, 가치관과 같은 개인생활의 일면들과 관련있다는 사실에는 비교적 합

의가 이루어져 최근 연구에서는 가장 유용한 지표로서 만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²⁸⁾.

결론적으로 객관적 지표가 한 개인의 생활의 질을 간접으로 측정하는 도구라면, 주관적 지표는 개인의 생활의 질을 직접으로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생활의 질 측정은 두 지표의 사용으로 정확해 질 수 있으며, 생활의 질에 대한 두 지표의 기여도와 상관관계의 파악도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생활의 질 관련변인 및 척도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사람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 이같은 개인의 생활의 질 내용을 조건지우는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그 척도가 다양하며 범위도 매우 넓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생활의 질 또는 그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drews와 Withey¹¹⁾의 연구에서는 흑인들, 10대들, 자녀가 있는 편부모, 저소득의 지식층, 저교육수준과 소득인들이 생활의 질이 가장 낮고 남성과 여성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gers와 Converse²⁵⁾도 실업자, 이혼자, 흑인은 생활의 만족감이 현저히 낮았고 도시보다 지방으로 이동할수록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Campbell, Converse와 Rodgers²⁹⁾도 소득, 직업,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 Shin 등³⁰⁾은 결혼상태, 교육, 직업, 인종 등이 생활의 질과 가장 관계있는 반면 성(性)과 소득은 관계가 적다고 하였다. 한경혜³¹⁾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생활의 질과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연령과 가족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동 등²⁶⁾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더 좋은 생활의 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기영⁸⁾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 자녀수, 주부의 연령은 생활의 질 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부와 남편의 취업과 학력, 가계소득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인종, 지역, 결혼상태 등이며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녀수, 가족수, 연령, 性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의 질 척도

선행의 생활의 질 연구에서 밝혀진 척도 중 공통적인 것과 가정생활과 관련있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의 질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척도를 유출할 수 있다.

① 경제생활(소득·소비)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원을 획득·배분하고 사용하는 가정의 경제생활영역⁸¹⁾은 물적환경, 건강, 교육, 여가생활등 다른 생활 영역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질 척도가 된다.

생활의 질 지표 중 자주 사용되는 것은 소득으로, Rodgers와 Converse²⁵⁾는 가계소득, Andrews와 Withey¹¹⁾는 경제상태를, shin 등³⁰⁾은 개인의 재정, 김해동²⁰⁾도 소득을 생활의 질의 중요변인으로 간주하였다. 김경동 등²⁶⁾은 저축을 척도로 사용·측정한 결과 중요도에서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히고, 김동일 등³²⁾은 소득을 사용·측정한 결과 별로 만족치 못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한경혜⁵⁾는 경제적 안정성을 척도로 하고 생활비 충족정도, 부채유무의 부담정도를 정해 농가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바 있다. 한편 이기영은 경제적 생활수준영역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자율성 및 다양성의 요인과 함께 생활의 질을 62.3%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② 영양(식생활)

식생활 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수한 영양에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양필요량과 건강상태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한 식생활 계획으로 예산편성과 식단작성, 계획적인 식비지출이 필요하게 되고⁸²⁾ 이에 주부는 현명한 결정을 함으로써 식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질 연구에서 Wallace⁴⁾, Drewnowski³⁴⁾는 영양을 척도로 제시했으며 Bubolz 등³⁵⁾은 영양이 가족생활, 신앙 다음으로 만족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김동일 등³²⁾도 그들 연구에서 제외한 지표로 영양상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

적하였고 김해동²⁰⁾, 한경혜⁵⁾는 각각 식생활과 영양을 척도로 선택하고 육류와 생선섭취정도, 동·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문숙재 등⁶⁾도 식생활을 생활의 질척도로 제시하였다.

③ 건강

건강은 사회의 가치관 중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의 건강은 가족의 원만한 인간관계, 적절한 식생활, 정신위생 및 정기적인 건강평가 등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나 가정생활에서 건강은 생활의 질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Shin 등³⁰⁾은 건강과 의료보호, Liu⁸⁶⁾는 건강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Bubolz 등³⁵⁾도 건강을 척도로 사용하여 생활의 질을 측정한 결과 가족생활 다음으로 중요하게, 그리고 만족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박용호³⁷⁾, 한경혜⁵⁾, 김해동²⁰⁾도 척도로 건강을 설정하고 지표로 연간외병일수, 병원이용능력, 가족원의 병자유무등을 들었다. 김동일 등³²⁾은 그들 연구에서 제외된 건강을 중요한 생활의 질 요인이라 하였다.

④ 가족관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으며, 가족생활은 복지(Well-being)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관심사로 계속 간주되어 왔다.

Andrews와 Withey³⁸⁾는 전반적인 복지 인지의 중요한 예측요인 중의 하나가 가족생활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였으며, Campbell, Converse, Rodgers²⁹⁾도 가족생활영역에 대한 만족은 총 복지의 28%를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두 영역 중의 하나가 가족생활임을 지적하고, 가장 뚜렷한 지표로 결혼상태를 들었다. Sussman과 Burchinal⁸⁹⁾은 가족 복지에 중요한 친족의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의사소통과 방문을 포함하였고, Bubolz 등³⁵⁾도 가족생활을 척도로 측정한 결과 만족도와 중요도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다. 김경동 등²⁶⁾은 결혼관계를 지표로 삼았고, 한경혜⁵⁾는 가족관계를 척도로, 부모자녀간·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지표로 하여 측정된 결과 생활의 질이 가장 높은 영역임을 알아냈다. 이기영⁸²⁾도 가족관계요인이 생활의 질을 가장 많이 설명한다고 밝혔다.

⑤ 주거환경

주택내 생활공간의 조건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간의 친밀도 및 유대감, 긴장완화와 관련이 있고, 또한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의 물리적·문화적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은 그 곳에 사는 구성원들의 생활수준 및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생활행위에 의한 공간배치에 있어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표는 주거시설의 기본보호의 효율성, 위생시설의 실태, 상수도, 窒당 사람수, 1인당 비취침면적 등의 주거적합성과 급배수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적인 욕실시설등의 편의성⁴⁰⁾외에 근린주거지역의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주거는 생활의 질 연구에서 전반적인 복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Andrews와 Withey³⁸⁾는 전체 생활의 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12영역의 목록에 주거를 포함시켰고, Campbell, Converse, Rodgers²⁹⁾도 주거를 지적하고 그 지역의 편리성, 방의 크기, 구조의 질, 난방체제 및 비용 등의 주택특성은 주거만족의 전반적인 인지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주거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Lindamood는 주택소유권 유무를, Field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⁴¹⁾ 지적하였고 Bubolz 등³⁵⁾의 연구에선 생활의 질 척도로 주택이 중요도에서 높게 평가 되었다. 박용호³⁷⁾는 물적환경을 척도로 정하고 그 지표로 주거의 소유관계, 1인당 주택면적, 상수도 이용정도를 제시하였고, 김해동²¹⁾은 주거상태를 정하고 주거소유관계, 음료수, 지붕의 재료 등을 지표로 농촌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였다.

⑥ 여가생활

삶의 패턴을 위한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여가는 일, 가정, 사회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개인의 의지대로 긴장완화, 기분전환 혹은 그의 지식과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넓게 하여 그의 창조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동이다⁴²⁾. 따라서 여가생활은 새로운 활력소를 얻는 생활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생활의 질 연구에서는 여가를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Andrews와 Withey¹¹⁾는 여가와 여가시간·시설을 지표로 정하여 생활의 질을 측정하였고, Shin 등³⁰⁾도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영역으로 여가활동

을 들었다. Bubolz 등³⁵⁾도 생활의 질 영역으로 여가시간활동을 설정하여 측정 한 결과 중요도에서 낮게 평가됨을 밝혔다. 한경혜⁵⁾는 여가를 척도로, 여가의 빈도와 가족원의 여가활용상태를 지표로 하여 농촌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여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김경동 등²⁵⁾도 생활의 질 척도로 여가를 제시했다. 이기영⁸⁾은 여가시간활용을 생활의 자율성 및 다양성의 요인으로 류고 생활의 질을 예시해주는 중요영역이라고 하였다.

⑦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가족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육체적 활동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작업자(주부)의 태도는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까지 침투되며 가사노동에 대한 감정은 생활만족의 한 요소¹¹⁾가 되므로, 이 태도와 감정은 가사노동의 능률화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복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과중한 가사노동은 이런 태도와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서는 편리한 시설·설비의 문제, 가족의 비협력 및 주부자신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Andrews와 Withey¹¹⁾는 가정이라는 척도안에 가사노동을 지표로 정하여 연구한 결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Rodgers와 Converse²⁵⁾도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15영역에 가사노동을 포함시켰다. 한경혜⁵⁾는 척도로 작업조건을, 그 지표로 가사작업조건과 농업노동조건을 정해 농가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여 가장 낮게 만족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김경동 등²⁵⁾도 생활의 질 척도에 가사노동을 포함시켰고, 이기영⁸⁾은 주부의 관리행동을 만족도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여, 중요한 생활의 질 예시영역임을 시사하였다.

⑧ 자녀교육

가정생활을 통해 자녀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얻게 되고, 자아개념을 확립해 나가게 되며, 자율성과 근면성, 창의성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이나 훈육방법,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밀접성,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등은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요인이다⁴³⁾.

Andrews와 Withey¹¹⁾, Liu³⁶⁾는 생활의 질 척

도로 교육을 제시하였고, Rodgers와 Converse²⁶⁾는 15개의 생활의 질 영역에 교육의 유용성과 교육의 양을 포함시켰다. 김경동 등²⁶⁾도 척도로 교육을 사용해 비교적 높은 만족수준임을 보고하였고 박용호³⁶⁾, 김해동²⁰⁾도 객관적 생활조건 요인으로 교육을 정하였다. 한경혜⁶⁾는 교육을 척도로 하고 자녀교육을, 교육자금준비율을 지표로 하여 생활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8가지 척도외에 생활의 질 척도로 사회영역까지 확대되는 사회보장과 복지시설 공공안전, 교통, 취업기회, 지역사회생활의 질 등이 있다. 참고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생활의 질 척도들을 <표 1>에 제시한다.

4. 생활의 질 측정의 문제점

생활의 질은 한 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기준이 되며, 모든 생활영역의 의사결정의 척도로서 중요하고, 현재와 적합치 못한 생활의 개선책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그러나 생활의 질은 그 개념 상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므로, 그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대상의 범위와 속성에 따라서 관련된 맥락의 특징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계량화가 용이하도록 지표의 조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의 질 개념이 정의된 다음, 효과적인 질 측정이 되도록 이론적·실용적 기본이 되는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척도를 구성하는 일반 구성요소를 상징하고 둘째, 각 구성요소의 관심영역에 따른 하부관심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지표를 체계화하여 접근해야 한다⁴¹⁾.

그러나, 이런 과정의 실천상 몇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질적인 개념을 量算化하여 나타낸다는 그 자체가 갖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양산화는 sensitivity를 갖기 위해 필요하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⁴²⁾는 이유로 모든 지표가 양산화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일치된 복지기능이나 가치체계가 없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척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⁴³⁾이다. 셋째, 각 지표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나 충분히 이론적이고 계량적인 근거에서 작성된 가중치 결정법이 없으므로, 생활

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간의 가중치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량적 접근의 假定들을 잘 통제하고 그 절차 상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효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생활의 질을 양산화하는 방법, 가중치 결정법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요망된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1) 척도구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 영역들과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영역을 선택하여, 이것을 문화적·지역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는 경제생활, 영양, 주거환경, 가족관계, 자녀교육, 건강, 가사노동, 여가생활 등 8개 항목의 중요생활관심영역이 된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 척도별로 지표가 도출되었으며(<표 2>참조), 구성된 지표 중 각 척도를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기 위해 회귀분석하여 지표별로 Beta 계수값을 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 척도당 Beta 계수값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지표를 선별하여(<표 3>참조) 이를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하였으며, 각 척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만족도, 중요도, 열망도를 주관적 지표로 선정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각 생활영역별 관련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로 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구한 결과, 신뢰계수(Cronbach α)가 .913이었다. 설문지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① 일반사항

조사대상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주부의 연령, 주부와 남편의 직업과 학력, 가

<표 2> 생활의 질 척도의 지표체계

척도	기본적관심사항	부차적관심사항	지표
경제생활	소득자산의 안정과 증가 소비내용의 개선	저축 예산생활	저축율 부채유무와 부담정도 생활비 충족정도 가계부기입
영양	영양상태	영양수준의 향상	단백질섭취 육·어류섭취 균형식사 식단계획여부
주거환경	주택의 소유관계 주거환경의 향상	주택넓이와 유용성의 향상 근린서비스시설이용의 용이화	주택의 소유형태 1인당 주거면적 주거시설설비수준 주거지역 주거편익시설수준
자녀교육	교육수준	교육열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교육자금준비 유무 자녀교육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견일치도
가족관계	가족생활 기능의 원활화	행복한 가족생활 친척관계	결혼상태 의사결정형태 가족간의 의사소통 친척간의 협력관계 노후준비 유무 부부의 의견일치도
건강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보다 높은 건강도의 향상 의료수준의 향상	연간와병일수 의료기관 이용일수 병원이용도 의료보험가입
가사노동	노동생활의 질 향상	작업환경 및 조건 인간관계	부엌구조형태 부엌내 상·하수도 시설수준 기기소유 및 사용수준 가족내 역할분담도
여가생활	생활시간에 있어서의 여가시간 수 자유시간의 활용방법 여가시설	자유시간의 증가 여가이용의 질 시설의 충당	1일 여가시간 여가활용상태 여가시설수준 및 이용도

〈표 3〉 생활의 질의 객관적 지표의 Beta 계수

척도	지 표	단순상 관계수	Beta 계 수	척도	지 표	단순상 관계수	Beta 계 수
경제생활	*저 축 울	.775	.372	가 족 관 계	결 혼 상 태	.277	.168
	*생활비 충족 정도	.832	.334		*의 사 결 정 형 태	.465	.312
	*가 계 부 기 입	.670	.379		*가 족 간 의 의 사 소 통	.671	.500
	부 채 및 부 담 정 도	.618	.291		*친 척 간 의 협 력 관 계	.572	.300
영 양	*단 백 질 섭 취	.811	.387	건 강	노 후 준 비 유 무	.531	.291
	*육 어 류 섭 취	.836	.363		부 부 의 의 결 일 치 도	.538	.273
	균 형 식 사	.685	.272		*연 간 와 병 일 수	.392	.276
	*식 단 계 획 여 부	.639	.306		의 료 기 관 이 용 일 수	.400	.274
주 거 환 경	*주택의 소유 형태	.629	.259	가 사 노 동	*병 원 이 용 도	.554	.408
	주 거 지 역	.470	.218		*의 료 보 험 가 입	.789	.690
	*1인당 주거 면적	.796	.327		*부 열 구 조 형 태	.875	.488
	*주거시설비수준	.822	.400		부 열 내 상 하 수 도	.629	.286
자 녀 교 육	주거편의시설수준	.609	.240	여 가 생 활	*가 족 내 역 할 분 담 도	.522	.292
	자 녀 에 대 한 기 대 교 육 수 준	.597	.394		*기 기 소 유 및 준	.773	.319
	*교육자금준비유무	.717	.675				
	*자 녀 교 육 을	.180	.398		*여 가 활 용 상 태		
교 육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496	.422	*1일 여 가 시 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견치도	.452	.283	*여 가 시 설 수 준 및 이 용 도			

- * : 본 연구에서 Beta 계수에 따라 선정된 객관적 지표.
- 여가생활 척도는 본래 3지표이므로 Beta 계수를 구하지 않음.

정의 소득에 관한 4문항이 구성되었다.

② 객관적 생활조건에 관한 문항

각 가정의 객관적 생활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생활 4문항, 영양 4문항, 건강상태 4문항, 자녀 교육 5문항, 가족관계 6문항, 주거환경 5문항, 여가생활 3문항, 가사노동 4문항으로 하여 모두 3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J. Drewnowski의 방식³⁴⁾대로 4수준으로 나뉘 1에서 4까지의 ordinal scale point로 전환하여 행하였다.

③ 주관적·심리적 상태에 관한 문항

각 가정의 주관적·심리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객관적 생활조건을 나타내는 척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8문항, 중요도 8문항, 열망도 5문항을 Likert type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예비조사결과 편포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균

정적차원으로 바뀌서 정하였다. 만족도의 경우는 '불만족하는 편이다'를 1점으로 하여 '매우 만족한다'의 5점까지, 중요도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매우 중요하다'의 5점까지, 열망도의 경우는 '거의 같은 정도로 노력한다'를 1점으로 하여 '훨씬 더 노력한다'의 5점까지 해서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생활의 질 점수는 8개의 생활관심영역에 대한 객관적 조건에서 얻어진 점수와 주관적·심리적 평가에서 얻어진 점수의 합으로 하였다.

2. 측정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중학교 이상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자녀교육영역을 고려하여)으로 하였고, 선정방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영동과 반포 Apt, 서교동, 방배동 지역과 중계동, 노량진, 망원동지역, 봉천 본동, 상제동, 거여동지역에서 할당 표집하였다.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3. 측정방법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1984년 10월 11일부터 13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일부를 수정·보완하여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 설문지 120부는 중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응답을 받는 방법과 280부는 4학년의 전공생들이 주부에게 직접 면접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총 400부 중 350부가 회수되어 성의부족, 부실기재 등의 설문지를 제외한 311부만 자료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주부의 연령은 46~50세가 전체의 25.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41~45세(20.9%), 35~40세(20.6%), 50세이상(17%)순이다. 교육수준은 주부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38.6%로 가장 많고, 국졸이하(23.2%), 대졸이상(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는 대졸이상이 전체의 49.2%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31.8%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분포는 주부의 경우 대부분이 가장 주부로 전체의 75.2%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문직·관리직보다는 판매·서비스직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다. 남편의 경우는 판매·서비스직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고, 관리직(21.2%), 사무직(20.6%)의 순이다. 소득분포는 평균 월수입이 10만원미만에서 150만원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30~39만원이 전체의 19.3%로 가장 많고 20~29만원과 40~49만원, 150만원 이상이 각각 약 13%를 차지하였다.

자료처리는 3가지의 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의 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를 하였고 둘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생활의 질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셋째,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

〈표 4〉 소득에 따른 각 객관적 지표의 평균·표준편차 및 F치 (N=311)

객관적지표	소득집단		중소득층(n=165)		저소득층(n=56)		F
	고소득층(n=90)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생활	9.389	1.778	6.915	2.207	4.946	1.752	89.658***
영양	8.844	1.323	6.830	1.853	5.391	1.603	80.214***
주거환경	10.711	1.220	8.364	1.897	6.696	1.617	107.865***
자녀교육	6.367	1.652	6.315	1.886	5.643	1.911	3.305*
가족관계	8.233	1.676	7.006	2.088	5.929	2.148	24.323***
건강	8.822	1.450	7.970	1.772	6.804	1.600	23.789***
여가생활	6.433	1.237	5.582	1.449	5.054	1.271	19.962***
가사노동	10.778	1.188	8.473	2.137	6.125	1.908	110.083***
전체	69.578	5.559	57.455	9.438	46.589	7.722	

(각 영역 df=2,308) *P<.05 ***P<.001

<표 5> 소득에 따른 각 주관적 지표의 영역별 평균·표준편차 및 F치 (N=311)

주관적 지표	소득집단 평균·표준편차 생활영역	고소득층(n=90)		중소득층(n=165)		저소득층(n=56)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 주 도	경제생활	3.278	0.862	2.242	0.995	1.821	0.993	49.498***
	영양	3.267	0.992	2.491	0.973	1.929	1.007	34.637***
	주거환경	3.233	0.882	2.697	1.038	2.429	1.059	13.158***
	자녀교육	3.456	1.072	2.879	1.075	2.424	1.078	15.976***
	가족관계	3.556	0.984	3.146	1.083	2.946	1.167	6.630**
	건강	3.056	1.043	3.061	0.961	2.661	1.100	3.562***
	여가생활	2.644	0.964	2.309	1.034	1.982	0.820	8.177***
	가사노동	2.989	0.814	2.491	0.985	2.304	0.952	11.742***
중 요 도	경제생활	3.822	0.967	3.618	1.134	3.536	1.279	1.412
	영양	4.033	1.086	3.418	1.312	2.964	1.427	13.182***
	주거환경	3.644	1.020	3.297	1.246	2.429	1.332	18.048***
	자녀교육	4.378	0.990	4.176	1.012	3.750	1.210	6.297**
	가족관계	4.033	1.054	3.861	1.168	3.375	1.137	6.043**
	건강	4.557	0.781	4.055	1.026	4.054	1.086	8.488***
	여가생활	3.000	1.037	2.618	1.227	1.857	1.103	17.037***
	가사노동	3.144	1.117	3.115	1.285	2.375	1.137	8.808***
열 망 도	영양·건강	2.989	1.402	2.564	1.420	2.143	1.368	6.453**
	가족관계·여가	2.733	1.389	2.661	1.390	2.089	1.311	4.403*
	자녀교육	3.822	1.259	3.570	1.420	3.071	1.548	4.992**
	경제생활	3.267	1.421	3.170	1.382	2.893	1.436	1.268
	주거환경·가사노동	3.100	1.415	3.030	1.479	2.500	1.388	3.454*

(df=2, 308) *P<.05 **P<.01 ***P<.001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의 질 비교

1) 소득에 따른 생활의 질

소득은 일반 통념상 30만원이하를 저소득층, 31~70만원 사이를 중소득층, 71만원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지표별로 비교한 후 이를 종합하여 생활의 질 정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처럼, 생활의 질의 객관적 지표는 변량분석결과 소득별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결과 세소득층은 각각 차이를 보였다(P<.05).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객관적 지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객관적 환경조건이 바람직하고 좋은 경향이 있다. 각 객관적 지표의 경우, 자녀교육영역만이 P<.05수준에서 유의하며, 나머지 영역들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상당히 유의하며

세소득층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주관적 지표와의 관계를 변량분석한 결과 <표 5>에서 처럼, 소득층별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1$)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결과도 소득집단간에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지표의 점수가 높아 주관적인 만족수준, 열망수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 각 주관적 지표의 경우, 만족도와 중요도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고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 결과 세소득층간의 차이가 뚜렷했으며, 열망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중소득층·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차이가 있었다. 영역별 만족도를 보면, 모든 영역이 유의미하여 ($P < .001$, $P < .01$, $P < .05$) 소득층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만족하는 영역은 가족관계로 세소득층이 동일하였고, 가장 불만족하는 영역은 고소득층이 여가생활,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경제생활로 나타났다. 영역별 중요도를 보면, 경제생활 영역만이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층간의 차이가 없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그의 모든 영역은 유의하여 ($P < .01$, $P < .001$) 소득층간에 차이가 있었다. 세소득층 모두 건강, 자녀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여가생활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영역별 열망도를 보면, 경제생활 영역만이 중요도에서 처럼 유의한 수준이 아니어서 소득층간의 차이가 없었고, 그의 모든 영역은 유의하여 ($P < .01$, $P < .05$) 소득층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장 열망도가 높은 영역은 세소득층 모두 자녀교육, 경제생활순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족관계, 중소득층이 영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6>에서 처럼, 생활의 질은 소득층별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P < .001$),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객관적 생활환경의 조건수준이 바람직하고 높으며 주관적인 만족수준과 열망수준, 가치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생활의 질이 가장 높은 영역은 고소득층이 주거환경, 가사노동순으로 중소득층이 건강, 주거

환경 저소득층이 건강, 자녀교육순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영역은 세소득층 모두 여가생활이었다. 이 결과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의 쾌적함, 작업조건의 편리함을 꾀하는 한편, 휴식과 행락에 국한시키는 가정의 여가에 대한 미숙한 의식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생활향상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목할 사항은 가사노동의 경우, 대체로 객관적 생활조건이 높은 반면에 만족도, 중요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다. 이는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긍지와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주부 스스로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 가사노동에 대한 새인식이 고취되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가사노동영역의 생활의 질은 높아지며, 따라서 가정의 생활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8개 영역 중 몇몇 영역을 제외하고는 100점을 기준으로 7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영역의 생활의 질이 고르지 못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다른 소득층의 생활의 질이 과히 바람직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의 질

남편과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의 질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생활의 질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1$),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 결과 극졸과 중졸이하의 교육집단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이외 다른 교육집단들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도 높은 경향이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의 질도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1$),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 결과 네교육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주부의 교육수준의 경우 모두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유의하게 나타나 ($P < .001$), 남편과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생활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생활하며 정신적인 만족, 열망, 가치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인

〈표 6〉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의 질의 변량분석

사회 인구학적 변인		표 본 수	평 균	표준편차	F
소 득	고 소 득 층	90	141.579	17.552	*** 83.821
	중 소 득 층	165	121.921	20.175	
	저 소 득 층	56	102.161	14.133	
남편의 교육수준	국 출 이 하	24	100.792	18.093	*** 48.862
	중 출 이 하	35	103.371	19.649	
	고 출 이 하	99	119.182	20.479	
	대 출 이 상	153	135.582	17.072	
주부의 교육수준	국 출 이 하	72	105.167	19.536	*** 49.747
	중 출 이 하	57	115.930	20.556	
	고 출 이 하	120	130.883	18.516	
	대 출 이 상	62	140.226	15.102	
남편의 직업	전 문 직	27	135.259	15.493	*** 24.571
	관 리 직	66	138.530	17.932	
	전 문·기 술 직	38	132.026	14.386	
	사 무 직	64	126.891	17.898	
	생 산 직	25	113.720	22.112	
	판매·서비스직	24	108.557	21.573	

*** $P < .001$

남편직업의 경우 missing data : 7(무직)

다고 할 수 있다.

3) 남편의 직업에 따른 생활의 질

남편의 직업에 따른 생활의 질은 〈표 6〉처럼,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1$) Duncan의 평균간의 비교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집단이 사무직집단과 생산직집단과 차이를, 판매·서비스직집단은 관리직, 전문직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이 관리직일때 생활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전문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이며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객관적 생활조건수준과 주관적인 만족수준, 중요수준, 열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기여도

생활의 질에 대한 두 지표의 기여도를 알아본 결

과 〈표 7〉과 〈표 8〉에서 처럼, 객관적 지표가 .869, 주관적 지표가 .919로 모두 매우 높았으며 전자보다 후자의 기여도가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생활의 질에 있어선 객관적인 생활환경조건과 함께 주관적·심리적인 의식상태도 중요한 구성요소가 됨을 나타낸다.

객관적 지표중 가장 기여도가 큰 영역은 가사노동($\beta = .264$)영역이고 다음이 가족관계($\beta = .217$), 경제생활($\beta = .200$)이며 가장 낮은 것은 여가생활($\beta = .066$)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영역이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정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고, 비물질적인 면을 대표하는 가족관계와 물질적인 면을 대표하는 경제생활의 기여도 역시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아 한 가정의 생활의 질은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각 주관적 지표는 만족도가 $\beta = .462$ 로 가장 기여도가 컸으며 다음으로 중요도($\beta = .443$), 열망도($\beta = .236$)순이었다.

〈표 7〉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기여도

객관적지표	다중상관계수 (R)	결정계수(R ²)	단순상관계수 (r)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사노동	.713	.508	.713	2.435	.264
경제생활	.802	.643	.693	1.779	.200
가족관계	.838	.702	.621	2.284	.217
영양	.851	.724	.695	1.918	.175
자녀교육	.862	.743	.319	1.615	.132
건강	.865	.748	.466	.958	.076
여가생활	.867	.752	.413	1.037	.066
주거환경	.869	.755	.700	.980	.095

〈표 8〉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표의 기여도

주관적지표	다중상관계수 (R)	결정계수(R ²)	단순상관계수 (r)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만족도	.779	.607	.779	1.543	.443
중요도	.879	.805	.761	1.823	.462
열망도	.919	.845	.627	.999	.236

생활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객관적 지표가 75.5%, 주관적 지표가 84.5%로 두지표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객관적 지표의 설명력은 가사노동이 50.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제생활, 가족관계 순이었고 가장 적은 것은 여가생활과 주거환경으로 나타났다. 각 주관적 지표의 설명력은 중요도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족도, 열망도 순이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척도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와의 상관관계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와의 관계는 〈표 9〉에서 처럼, pearson의 상관계수가 .582(P<.001)로 밀접하게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의 객관적 조건들과 이런 조건들에 수반하는 주관적인 인식이 상응·일치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즉 객관적 생활조건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 중요도,

열망도도 높은 경향이 있다. 직업, 교육, 소득의 격차로 빈부의 차가 심한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생활의 객관적 조건이 부족상태에 있으므로 이것이 주관적인 느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상태와의 관계를 더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각각의 주관적 지표와의 관계, 각각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객관적 지표인 경우는 가사노동이(.502) 주관적인 인식과 가장 관련이 깊었으며 주관적 지표인 경우는 만족도(.562)가 객관적인 생활환경조건과 가장 관련이 깊었다.

전체적으로 생활의 질과 객관적 지표와의 관계, 생활의 질과 주관적 지표와의 관계도 모두 유의하여(P<.001) 각각 상관계수가 .864, .912로 주관적·심리적인 상태가 생활의 질과 더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생활의 질은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심리적 상태와 모두 상호관련 있으며, 개인의 정의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표 9〉 생활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들간의 상관관계

	생활의 질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경제생활	영양	건강	자녀교육	가족관계	주거환경	여가생활	가사노동	만족도	중요도	열망도
생활의 질	—	.864	.912	.693	.695	.466	.320	.622	.700	.413	.713	.761	.779	.627
객관적지표		—	.582	.799	.791	.588	.381	.683	.822	.511	.799	.562	.507	.307
주관적지표			—	.470	.470	.274	.207	.448	.462	.251	.502	.772	.847	.763
경제생활				—	.619	.414	.204	.487	.582	.360	.538	.450	.423	.234
영양					—	.394	.193	.458	.602	.343	.612	.457	.446	.225
건강						—	.213	.290	.387	.178	.374	.274	.252	.118
자녀교육							—	.196	.152	.074	.132	.191	.155	.148
가족관계								—	.512	.274	.426	.402	.385	.276
주거환경									—	.363	.751	.487	.358	.252
여가생활										—	.368	.288	.240	.058
가사노동											—	.454	.438	.294
만족도												—	.475	.373
중요도													—	.492
열망도														—

*P<.05 **P<.01 ***P<.001

심리적 상태가 근소하나 생활의 질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생활의 질은 주관적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구성하여 소득·교육·직업별로 생활의 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기여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객관적 지표로는 경제생활, 영양, 주거환경, 가족관계, 자녀교육, 건강, 여가생활, 가사노동 등의 8개 생활관심영역이 주관적 지표로는 만족도, 중요도, 열망도 등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측정된 생활의 질을 소득집단별로 측정한 결과, 생활의 질

은 소득집단간에 매우 유의하여($P<.001$)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생활의 질이 가장 높은 영역은 고소득층이 주거환경, 가사노동, 중소득층이 건강, 주거환경, 저소득층이 건강, 자녀교육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모두 여가생활이었다.

둘째, 주부와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별로 생활의 질을 비교한 결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1$). 즉 주부와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 .869, .919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보다 후자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각 객관적 지표의 경우,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사노동이며, 다음으로 가족관계, 경제생활영역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여가생활이었다. 주관적 지표의 경우는 만족도, 중요도, 열당도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총 설명력은 75.5%이고, 주관적 지표는 84.5%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택된 객관적 지표의 8개 생활관심영역과 이 영역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열당도인 주관적 지표는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비례,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82$). 또 생활의 질과 객관적 지표의 관계, 생활의 질과 주관적 지표의 관계도 상관계수가 각각 .864, .912로 모두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생활의 질은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심리적 상태와 모두 상호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즉 소득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할수록 생활의 질이 높게 나타나 외국 선진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선진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 생활의 질을 보고 하는 반면에 한국의 도시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생활의 질이 구분된다. 이는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만족될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의 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한국에서는 현재로서 충분한 자원공급이 불가능한 까닭에 자원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일수록 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의 행복을 영위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충족치 못한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정경영측면에서의 노력과, 외면적으로 기본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최저자원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연구는 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선정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척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정확한 지표체계를 위한 연구를 실시

한다면, 이들을 종합한 모든 영역에 대한 생활의 질 연구가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영역이 생활의 질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점에 주목하여, 가사노동을 포함한 가정관리측면에서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생활의 질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수립가들은 중요한 정보의 하나로서 생활의 질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생활의 질을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욕구와 가치체계가 사회적으로 규명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지표구성이 더 정형화되고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의 질 측정에 있어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의 질 평가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음을 지적해두며, 이 점은 생활의 질 지표개발과 아울러 미래의 연구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박영사, 1982.
2.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3. 문숙재, “한국가정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가정분석론,”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4호, 1983.
4. Wallace, S., “Quality of life,” *Journal of Home Economics*, November, 1974.
5. 한경혜,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0.
6. 문숙재, 소연경,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1983.
7.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8.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3호, 1984.
9.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

- 간 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2호, 1984.
10. Liu, B.C., "Quality of Life: Concept, Measurement and Result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4, No. 1, 1975.
 11. Andrews, F.M. & S.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 London: Pleum Press, 1976.
 12. Dalkey, N.C. & D.L. Rourke, "The Delphi procedure and rating Quality of Life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Concept: A potential new tool for decision-maker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Research and Monitoring Environmental Studies Division. 1973.
 13. Hornback, K. & R.W. Shaw, "Toward a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Quality of Life," Paper presented at the Quality of Life symposiu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72.
 14. Gitter, G.A. & D.L. Mostofsky, "The Social Indicators an index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Biology*, Vol. 20, 1973.
 15. McCall, S.,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1975.
 16. Livingston, R., In the Quality of Life Concept: A potential [new fool for decision maker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73.
 17. Mitchell, A., T.J. Logothetti, R.E. Kantor, "An Approach to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Quality of Life Concept: A potential fool for decision maker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Studies Division, 1973.
 18. Liu, B.C.,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A Comparative Indicator Analysis Between China U.S.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9, No. 1, 1980.
 19. 김경동, 「발전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0.
 20. 김해동, "한국 농촌 생활지표 연구—새마을 운동의 임팩트," 「행정논총」, 제14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6.
 21. 정철모, "한국 도시에 있어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0.
 22. 현오석, "생활의 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76.
 23. 김영섭, 「사회개발계획론」, 서울: 법문사, 1975.
 24. Schneider, M.,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No. 3, 1976.
 25. Rodgers, W. & P.E. Converse, "Measure of the Perceived Overal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1975.
 26. Lee Hong Koo, Kyoung Dong Kim & Doh C. Shin,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an Industrializing country: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 No. 3, 1982.
 27. Dalkey, N.C., "Quality of Life," In the QOL Concept: A potential fool for decision maker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73.
 28. Schneider, M., "The Quality of Life in Large American Cities: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No. 2, 1975.
 29. Campbell, A., P.E. Converse & W.L. Ro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6.
 30. Shin, D., N. Ostroot & W. Synder, "Quality of Life Perception i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1, No. 2, 1982.
- 이기춘, 「기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1976.

32. 김동일, 김재용, 강철인, 「한국 농촌 주민의 생활의 질 : 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 보진제, 1982.
33. 김정자, “주부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0.
34. Dre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evels of Living & Welfare, UNRISD Report, No. 70, 1970.
35. Bubolz, M.M., Eicher, J.B., Evers, S.J. & Sontag, M.S. (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9, No. 7, 1980.
36. Liu, B.C., “Quality of Life Indicato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 1974.
37. 박용호, “생활지수의 측정,” 「행정논총」, 제 15권, 2호, 1977.
38. Andrews, F.M. & S.B. Withey,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 No. 1, 1974.
39. Sussman, M.B. & L. Burohinal, “Kin Family Net Work: Unheralded structure in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living*, Vol. 24, 1962.
40. 이중혜, “주택내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1.
41. 신경화, 윤복자, “주택내부공간의 기능성에 관한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1호, 1984.
42. 안동선,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2.
43. 강문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상관적인 일 연구,” 「논문집」, 서울 : 서울여자대학교, 제10호, 1981.
44. Pigou, A.C.,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acmillan and Co., 1954.
45. Bunge, M., “What is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No. 2, 1975.
46. Ayres, R.U., “A Material-Process-Product Mode” in A. Kneese & B. Bower(eds.), *Environmental Quality Analysis*,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72.